

저자 약력

허니 리버틴 R. 아찬자르(Honey Libertine R. Achanzar)는 마닐라 소재 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Philippines) 내 예술커뮤니케이션학과(Department of Arts and Communication) 교수회의 일원이다. 동남아시아의 미술 및 문화를 주제로 광범위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전문 분야는 필리핀의 금속 세공이다.

요란다 E.M.F. 보스-셀덴트하이스(Jolanda E.M.F. Bos-Seldenthuis)는 레이덴대학교(Rijksuniversiteit Leiden, 네덜란드 소재)에서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했다. 네덜란드국립고고학국(Dutch Archaeological State Service)에서 계약 고고학(contract archaeology) 형태로 일한 적이 있고, 현재는 유산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등 사설 컨설턴트 기관인 '패스트투프레젠티 아키올로지(Past2Present-ArcheoLogic)'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유산 관리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네덜란드에서 이집트 유산 관리를 주제로 한 '패스트투프레젠티'의 출판 시리즈 및 논설을 위해 연구 계획과 위험성 분석을 글로 써냈다. 또한 이집트 고고학과 관리에 대해 강연도 하고 있다.

무니르 부체나키(Mounir Bouchenaki)는 알제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공부했고,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문학과(Faculty of Letters of Aix-en-Provence)에서 고고학과고대사(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알제리의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에서 '고대유물, 박물관 및 역사적 유적(Antiquities, Museums and Historic Monument)' 부서의 장을 지낸 후, 유네스코에 들어가 다양한 직책에서 수년 간 일했으며, 마침내 문화사무차장(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사무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성취된 진전 가운데 하나는 2003년에 '무형유산협약(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을 채택한 것이다. 2006년에는 사무차장으로서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otration of Cultural Property)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로마에서 지내고 있다.

패트릭 J. 보일런(Patrick J. Boylan)은 런던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London) 문화정책 관리학과(Heritage Policy and management)의 명예교수이다. 또한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코넬리우 로안 부커(Corneliu Ioan Bucur)는 1942년 루마니아 메디아슈(Medias)에서 출생했으며 1965년 민족지학적 박물관학 전공으로 클루지나포카 대학교(University of Cluj-Napoca)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겐(Göttingen)의 IWF(Institut für den Wissenschaftlichen Film, 학술영화연구소) 1969-70년 동안 민족지학적 다큐멘터리 영화 연구를 수행했으며, 1981년에 부쿠레슈티(Bucharest)의 미술사연구소(Institute of Art History)에서 산업화 이전 시대 기술의 문명사(History of Civilization)를 전공으로 역사과학(History Science)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5년 루마니아 시비우(Sibiu)의 브루켄탈 민속기술박물관(Brukenthal Folk Technique Museum)에서 학예사로 시작하여 과장으로 올라섰으며, 이후 1990년부터는 유럽 최대의 야외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아스트라 이 조 국립박물관단지(Astra I + National Museum Complex) 전체의 총괄 관장이 되었다. 1971년 이래 시비우대학교(University of Sibiu)에서 대학교 강의교수 직책을, 그리고 이어서 교수 직책으로 재직했다. 박물관단지의 과학 부문 출판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150권이 넘는 책, 연구 논문 및 논설을 출판했다. 박물관학 관련 활동에서 이룬 업적으로 1993년 올해의 유럽박물관(European Museum of the Year)상 중 개인상(Personal Award)을, 2004년 '문화 보상(Cultural Reward)' 부문 루마니아대통령훈장(Romanian President Medal)을, 그리고 2005년 '문화 우수 사례: 저명 수훈자(Cultural Excellence: Grand officer)' 부문 동일한 훈장을 받았다.

마틸다 버든(Matilda Burden)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케이프 주(州, Western Cape Province)의 조지(George)에서 출생했으며, 남아공의 스텔렌보스대학교(University of Stellenbosch)에서 수학하며 학사 학위부터 박사 학위까지 모두 취득했다. 그리고 초반에 국가기록보관소(State Archives)에서 기록보관사로 일하다가 다시 스텔렌보스로 돌아와 강의교수로 25년간 문화사를 강의했다. 문화사(민속의 하위 분야 포함) 중에서도 무형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스(Afrikaans)로 된 민속 노래와 방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외에도 건축, 가구, 계보학, 지명 등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스 민속 노래, 올드 케이프(Old Cape)의 가구, 방언, 민속 신앙, 기후 지식 등을 주제로 학술적 출판물을 냈다. 팔(Paal)과 서케이프(Western Cape) 두 곳에서 아프리카스유적 및 박물관위원회(Board of the Afrikaans Language Monument and Museum)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국가·주(州)·지역 단위 문화유산과 관련된 몇몇 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볼테르 가르시스 캉(Voltaire Garces Cang)은 필리핀 세부(Cebu)에서 출생했으며 교토대학교(Kyoto University, 교육심리학 학사 학위), 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아시아연구 석사 학위), 도쿄 소재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국제관계 석사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현재는 도쿄 소재 릿쿄대학교[Rikkyo (St. Paul's) University]의 이종(異種)문화간교류(Intercultural Communication) 대학원 박사 학위 지원자이며, 동시에 동 도시 소재 RINRI 윤리연구소(RINRI Institute of Ethics)의 방문연구원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이종문화간 교류, 유산 연구, 일본의 사회 및 문화 등이 있다.

우도 괴스발트(Udo Gößwald)는 독일 베를린 소재 노이퀼른박물관(Museum Neukölln)의 관장이며 '유럽에서의 출생(Born in Europe)'이라는 국제 프로젝트의 창시자다. 또한 2005년 이래 국제박물관협의회 유럽지부(ICOM-Europe)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useum-neukoelln.de>와 <http://icom-europe.org> 두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한민호는 미국 소재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예술경영학(Arts Management)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의 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리처드 쿠린(Richard Kurin)은 스미소니언 민속생활및문화유산센터(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의 관장으로, 해당 센터에서 스미소니언 민속생활축제(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스미소니언 민속기록(Smithsonian Folkways Recordings), 그리고 여타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前) 풀브라이트(Fulbright,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회원이다. 또한 <문화 중재자의 반성: 스미소니언의 시각(Reflections of a Culture Broker: A View from the Smithsonian)>의 저자이기도 하다. 평생 이룬 업적을 통해 스미소니언사무관상 중 최고의 서비스 부문 금메달(Smithsonian Secretary's Gold Medal for Exceptional Service), 그리고 미국민속협회 보트킨상(American Folklore Society's Botkin Prize)을 받았다.

마틴 스크리드스트럽(Martin Skrydstrup)은 미국 소재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인류학과의 박사 학위 지원자이자 ICOM 국제민족학박물관위원회(ICM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of Ethnography)의 위원이다.

저자 약력

마리아 블라카키(Maria Vlachaki)는 1973년 그리스 볼로스(Volos)에서 출생했다. 그리스 소재 테살리아대학교(University of Thessaly)에서 교육학, 역사, 사회인류학을 공부했다. 현재 그리스 볼로스 소재 테살리아대학교의 유아교육과에서 박물관교육학의 박사 학위 지원자로 있으며, 박물관연구학(Museum Studies)의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1998년 이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구전 역사의 활용을 주제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양한 학술 회보에 실려 출판되었다.

리타 드 칼루웨(Rita De Caluwe)는 RPS트대학교(Ghent University)에서 수학을, 그리고 그르노블과학의학대학(Université Scientifique et Médicale de Grenoble)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1974-2006년 동안 겐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곳에서 퍼지 데이터베이스(fuzzy database)를 다루는 연구 그룹을 이끌었고, '90년대의 퍼지성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의(Lectures on Fuzziness and Databases in the Nineties)'의 국제적인 연속 강의를 준비했다. IFIP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4년간 벨기에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올모 코넬리스(Olmo Cornelis)는 체계음악학(Systematic Musicology)과 작곡학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 소재 겐트대학교와 겐트왕립음악원(Ghent Royal Conservatory)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테르뷔랑(Tervuren) 소재 벨기에왕립중앙아프리카박물관(Belgian Royal Museum of Central Africa)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광대한 민족음악학 수집 기록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곡가로서 소규모 앙상블용 음악을 주로 쓰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스 ган세만스(Jos Gansemans)는 벨기에 테르뷔랑 소재 왕립중앙아프리카박물관에서 민족음악학 분과를 맡아 악기 소장품(8천 점)과 소리 기록물(약 3천 시간 분량의 녹음 음악)을 관리하고 있다. 아프리카[특히 르완다, 콩고 및 코트디부아르(Ivory Coast)]에서 현지조사를 다수 실시해 왔으나, 현재는 자신의 연구 및 관련 소장품들에 기반한 논설과 CD를 출판/발행하는 일에 주로 매진하고 있다.

악셀 할레즈(Axel Hallez)는 겐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해당 대학교에서 조교로 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퍼지) 객체 비교를 주제로 한 박사 학위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마크 레만(Marc Leman)은 벨기에 소재 겐트대학교에서 체계음악학 연구교수이자 음악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음악적 내용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해 연구를 시행했는데, 특히 인식론적·방법론적 기저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논설과 책을 몇 차례 썼으며, 가장 최근에 완성된 것으로는 MIT 출판부에서 2007년 9월에 출판될 예정인 <구체화된 음악 지각 및 전달 기술(Embodied Music Cognition and Mediation Technology)>이 있다.

톰 매튜(Tom Matthé)는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로 겐트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해당 대학교에서 조교로 지내고 있다. 주된 관심 분야는 퍼지 데이터베이스와 퍼지 쿼링(querying) 기술이다.

더크 뮐란츠(Dirk Moelants)는 벨기에 소재 겐트대학교 음악학과의 박사 과정 조교로, 해당 대학교에서 음악 이론과 민족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다. 음악 공연의 리듬, 동작 및 타이밍, 그리고 지각의 측면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동시에 비올라다감바(viola da gamba) 연주자로서 특히 해당 악기로 현대 음악 및 비서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 드 트레(Guy De Tré)는 겐트대학교의 전기통신 및 정보처리학과에서 퍼지정보처리(Fuzzy Information Processing)을 가르치는 교수다.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색 기술과 쿼링, 불완전한 정보의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접근성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다니엘 라니어(Daniel Lanier)는 독립 연구원이자 음악가로, 미국 해안가 지역의 음악과 문화를 30년 이상 연구해왔다. 이전에는 미스틱항구박물관(Mystic Seaport Museum, 미국 코네티컷 소재)의 교육 부에서 재직하면서 1980년대 카리브해 지역의 뱃노래 전통들을 공부했다. 최근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면서 세인트빈센트(St. Vincent)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2001년 그 곳에서 빈센트 리드(Vincent Reid)를 만나 바롤리(Barrouallie)의 뱃노래를 부활시키는 작업을 제안했다. 2002년에 라니어와 리드는 바롤리의 해안가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바롤리 고래잡이 프로젝트(Barrouallie Whalers Project)를 창설했다.

빈센트 리드(Vincent Reid)는 독립 연구원이자 빈센트섬의 원주민으로, 다양한 공공 연구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22년 이상 자신의 모국 도처에서 작업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폐기물처리체(Solid Waste Management Unit)에서 감독관의 직책을 맡고 있다. 바롤리 고래잡이 프로젝트의 섬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의 창설자/관리자이고, 이외에 빈센트섬의 다른 공연 예술가들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보조금을 받아 바롤리 고래잡이 역사를 연구 중인 아칸소주립대학교(Arkansas State University) 연구원들을 위해 지역 연락원 역할을 수행했다.

샬럿 앤드류스(Charlotte Andrews)는 영국 소재 케임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인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브리트 베일리(Britt Baillie)는 영국 소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벤자민 모리스(Benjamin Morris)는 영국 소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다시아 비에호-로세(Dasia Viejo-Rose)는 영국 소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